

새 언약

“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1:31,33

언약은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입니다. 본문 첫 부분의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옛" 언약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율법 언약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24장; 히브리서 8:13). 사도 바울은 율법 언약의 여러 특징들이 장차 올 새 언약 아래 있을 "하늘의 것들의 그림자"이자 "장차 올 좋은 것들"의 예표였다고 설명한다. 히브리서 8:5; 10:1

새 언약의 약속은 아브라함 언약에서 비롯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창세기 22:16-18). 사도 바울은 "사백삼십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언약을 주셨다고

말합니다(갈라디아서 3:15-17). 그러고는 수사적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언약]은 왜 주어졌는가?"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는 약속의 씨가 오실 때까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19

율법 언약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었으며, 유대 민족이 자신들의 타락하고 불완전한 상태를 깨닫고, "죄가 더욱 죄로 드러나도록" 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 (로마서 7:12-14; 3:20).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24). 율법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구속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곧 그분의 흘리신 피가 필요함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속죄일의 제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언약을 주실 때,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과 그곳에서 드릴 제물에 관한 지침도 함께 주셨습니다. 매년 속죄일에는 피를 흘리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16장

먼저 아론이 "자신과 그의 집을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릴 수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 "속죄소 위와 앞에 일곱 번 뿌렸습니다." (레위기 16:11-14). 이는 완전하신 인간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분"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5,6). 바울은 다른 곳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9:19-22

요단 강에서의 예수의 헌신과 성령의 잉태, 그리고 이후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정해진 때"에 새 언약 아래 오랫동안 약속된 축복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현실이 될 것이라는 보증이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다: "이처럼 예수께서 더 나은 언약의 보증[그리스어: 담보 또는 보증]이 되셨으니"라고. "그가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7:22; 9:12; 10:10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약속된 복의 씨임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씨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씨'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16

주님의 염소 제사

이스라엘의 연례 속죄일에는 두 번째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한 속죄 염소"였으며, 그 피도 가장 거룩한 곳으로 가져가 "속죄소 위와 앞에" 뿌려졌습니다. 이는 황소 제사와 동일했습니다. (레위기 16:15). 염소의 제사는 현재 복음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추종자들의 "산 제물"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려" 애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곧 무엇이 옳고 기쁘고 온전한 것인지 분별하려" 노력합니다. (로마서 12:1,2). 그리스도를 전념하여 따르는 성도들의 희생은 황소 제물로 상징된 예수님의 대속 희생의 공로로 인해 하늘 아버지께만 받아들여집니다. 바울이 설명하듯,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으니, 우리는 그 피로 구속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6,7).

광야에서 성막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로 피를 가져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린 제사는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바로 속죄일에 드리는 수양의 제사와 주님의 염소의 제사였습니다.

이 두 제사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비밀'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약속된 복의 씨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5:23-32; 골로새서 1:26,27).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은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으니...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갈라디아서 3:27-29).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몸은 여러 지체가 있으나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2:12

새 언약의 사역자 훈련

그리스도 예수와 그 몸의 지체들은 새 언약의 조건 아래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6). 지금 진행 중인 우리의 준비는, 우리가 죽기까지 충실하다면, 우리로 하여금 자연 이스라엘과 결국 온 인류에게 새 언약()을 집행하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자격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이 준비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분의 율법이 우리의 삶과 행실에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격 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고린도후서 3: 2-5

사도는 또한 아브라함 언약의 특별한 특징 아래 현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검증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특징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 예표되었습니다(갈라디아서 4:22-31). 사라는 "자유로운 여자"로서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었으며, 오랜 불임 끝에 약속의 씨인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사라 상징은 축복의 씨를 생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씨는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창세기 24장 마지막 구절들에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삭이,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타내는 리브가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했는지 알게 됩니다. 67절은 "이삭은 어머니[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복음 시대 동안 작용하는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 즉 복의 씨, "작은 무리"(누가복음 12:32)의 양육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죽음은 복음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그 후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새 언약이 작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축자가 하나님인 성읍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때부터 더 나은 날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 사도는 이렇게 기록한다. "믿음으로 그는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을 치고 살았으니, 그들은 그와 함께 같은 약속의 상속자들이었다. 그는 기초가 있는 도시를 바라보았으니, 그 도시의 건축자이자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서 11:9,10

성경에서 도시는 종종 상징적으로 정부를 나타내는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예루살렘 도시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정부를 상징합니다. 앞선 구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라보던 이 도시, 즉 정부가 "기초"를 가져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즉, 힘과 안정성, 영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인 "의와 공평", "은혜와 진실"입니다(시편 89:14). 그러한 왕국에 이러한 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니,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된 것이더라." (요한계시록 21:2). 이어지는 구절들은 새 언약의 조건 아래 기능할 이 왕국이 이루게 될 사역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21: 3,4

새 언약의 중보자

"중보자"라는 단어는 중재자나 화해자를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오직 두 당사자 간의 언약과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모세는 율법 언약의 중보자였으며, 새롭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심으로 말미암아 더 뛰어난 사역을 얻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8:6). 여기서 율법 언약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 아래 이스라엘 민족은 의롭다 함과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언약의 모든 요구 사항을 완벽히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상태 때문에 그들은 그 조건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19,20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일 그 첫 언약에 흠이 있었다면 둘째 언약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흠을 발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7,8). 첫 번째 언약인 율법 언약은 완전한 사람이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축정한 것이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었으니, 그분만이 완전하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5:17,18

율법 언약은 중재자 모세가 각 범죄자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그들이 결국 완벽하게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모세 자신도 불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그 모든 요구 사항을 지키는 데 큰 장애물이 되었던 악한 영향력을 근절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백성과 모세의 본성적() 불완전함과 수많은 외부 악의적 영향력 때문에, 백성을 하늘 아버지와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화합과 은혜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새 언약의 체결에 관해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을 것이니, 내가 그들을 손으로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렸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히브리서 8:9) 새 언약은 메시아 왕국 시대에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다시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중재자,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의 지체인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6;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28-30). 함께 "그리스도"는 동정심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 새 언약의 집행자가 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11,16-18; 요한계시록 20:6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내가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며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10). 그때에는 "그들이 더 이상 이웃에게,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34

이전 사건들

시나이 산에서 율법 언약이 체결될 때 천둥과 번개, 짙은 구름, 나팔 소리와 연기, 산이 크게 흔들리는 일이 있었습니다(출애굽기 19:16-18).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려워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히브리서 12:18). 이 자연 현상들 각각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 두려운 광경과 소리가 율법 언약 체결을 앞섰듯이, 마찬가지로 지상에 큰 환난의 시기가 닥칠 것입니다(히브리서 12:18-21). (히브리서 12:18-21). 이 자연 현상들 각각은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율법 언약이 세워지기 전에 이러한 두려운 광경과 소리가 있었듯이, 새 언약이 시작되기 전에도 땅에 큰 환난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2:1; 요엘 2:1-11; 요한계시록 16:18-21

성경 예언과 시대의 징후들이 성취됨은 이 큰 환난의 시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요구와 불만의 소용돌이; "번개"는 진리의 섬광과 불의의 드러남을, "짙은 구름"은 커져가는 환난과 불만을, "나팔 소리"는 실제적·상상적 권리 요구를, "연기"는 무정부 상태의 상징적 파괴 불길에서 비롯된 결과를, "지진"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 사회·경제·종교 제도의 제거를 의미한다. 학개 2:6,7; 히브리서 12:26,27

모세는 유대 민족에게서 떨어져 있었으니, 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할 때 산이 연기로 덮이고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마지막 구성원들이 죽기까지 신실함을 입증받고 신성한 본성으로 부활할 때, 지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의 절정이 올 것임을 암시한다. 다행히도 그 날들은 단축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 아래 왕국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마태복음 24: 21,22

지상의 대표자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집행하기 위해 지상에 인간 대표자들을 두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이전, 아벨부터 세레 요한까지 살았던 부활한 신실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심판관"이자 "온 땅의 통치자들"으로서, 인류를 돕는 인간 지도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11; 누가복음 13:28; 이사야 1:26; 시편 45:16

사도 바울은 이 신실한 자들 중 일부의 이름을 열거하며 덧붙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이라 그들이 우리 없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히브리서 11:1-40). 이 하나님의 남녀들은

주님을 신실히 섬기며 크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영적 씨의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나" 각자는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가 완성되고 새 언약이 시작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 고대의 의인들은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처럼 "완전한" 상태로 부활할 것입니다. 완전한 마음과 능력을 가진 그들은 백성의 본보기와 교사가 될 것입니다.

신실한 남은 자들

고대의 의인들 외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은 유대인 가운데 신실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들은 새 언약의 축복을 가장 먼저 누리는 자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 30:19; 시편 107:6,28).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 "야곱[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땅의 사방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0:21,22; 11:11-16).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이 모일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1-8

이 신실한 유대인 남은 자들은 결국 돌이켜 구원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다른 나라들과의 정치적 협정이나 인간의 군사적 힘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사야 30:15,18,19; 스가랴 14:1-3). 선지자 스가라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내가 ... 예루살렘 가운데 거할 것이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릴 것이며 ... 이 날에 이 백성의 남은 자의 눈에 놀라운 일이 될 것이요 ...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였듯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가 복이 되리라. ... 너희가 행할 일은 이것이니라. 각 사람이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과 평안의 심판을 행하라." 스가랴 8:3,6,12,13,16

계속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과 강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만군의 주님을 찾으러 오며, 영광의 주님 앞에서 기도하리라. ... 그 날에 열 사람이 [온 땅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여] 모든 나라의 언어 중에서 유대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하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스가랴 8:22,23). 이처럼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을 시작으로, 고대의 의인들로부터의 가르침과 함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주시며 그들 안에 의의 영이신 "새 영"을 두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에스겔 11:17-20). 마지막으로 선지자 미가는 새 언약의 축복이 온 인류에게 흘러내릴 "이슬"과 "소나기"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여호와와 이슬과 같을 것이요, 풀 위에 내리는 소나기와 같을 것이니, 사람이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아들이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미가 5:7,8

예수의 피로 인침

히브리서에서는 율법 언약의 체결이 새 언약이 어떻게 체결될 것인지를 예로 제시됩니다. 사도는 율법 언약과 새 언약과 같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피로 인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언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언약을 확증하는 희생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은 죽은 희생 위에 확증되므로, 그 언약을 확증하는 희생이 살아 있을 때에는 결코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율법 언약)도 피 없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16-18). 예수님의 죽음 은 새 언약을 인치실 피의 가치, 즉 공로를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제정하신 그 밤에, 그분은 잔을 건네시며 초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27-28; 누가복음 22:20; 고린도전서 11:25).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시작할 가치나 공로를 제공할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제자들은 복음 시대를 통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전념한 추종자들처럼, 그들을 위해 치러진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상징하는 잔을 마시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4:13; 고린도후서 1:7). 그들은 구주이신 그분의 피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24; 5:1,9). 그러므로 이들은 "그와 함께 죽음"을 경험할 기회를 얻어 "그와 함께 살게" 되며,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 "그와 함께 왕이요 제사장"으로서

"통치"하게 됩니다. 2디모데 2:11,12; 요한계시록 20:6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떡이 하나이니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떡을 떼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0:16,17

히브리서에서 사도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다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19,20). 이 상징적인 그림에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의 지체들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지상 모형들은 이 제물로 정결하게 하려 함이 마땅하였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자체는 이것보다 더 나은 제물로 정결하게 하셨느니라." (23절). 율법 언약 아래서의 "모형들", 즉 현실을 상징하는 것들은 소와 염소 같은 동물 희생으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과 그 제도를 이루는 "하늘의 것들"은 "더 나은 희생 제물"로 깨끗하게 됩니다. 이 더 나은 희생 제물은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입니다.

새 언약의 중재자는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 계급, 곧 머리이신 예수와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과 인류를 화해시키는 그들의 중재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의 마지막 지체가 신실함을 입증받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사역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0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목적이 인류를 하나님께로 다시 화해시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희생과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마련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16,17). 새 언약은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인간 창조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찾기 어렵도다." 로마서 11:33